

“소·양 풀 뜯고 신선 먹거리로 요리체험… 딸기도 가꿔요”

Q 르포 | 매일유업 농어촌 테마공원 ‘상하농원’ 가보니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전원 생활을 꿈꾸기 마련이다.

여기, 짧게나마 도시를 떠나 산천초목 사이에서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너른 들판에서 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계절에 따라 갖가지 작물을 직접 수확해볼 수 있는 이곳은 ‘상하농원’이다.

매일유업이 2016년 4월 개장한 ‘상하농원’은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약 3만 평 대지에 ‘짓다, 놀다, 먹다’라는 컨셉트로 조성된 농어촌 테마공원이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려 차를 타고 한 시간 가량 이동하면 초록빛 넓은 들판과 유럽의 목장을 연상시키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농원회관과 매표소, 파머스마켓을 가장 먼저 방문할 수 있는데, 이곳은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로 늘 북적거린다고. 내부에 있는 작은 전시관에서는 소장중인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농원회관 앞뜰에는 시즌별로 작물을 심는데,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청보리를 수확한 직후였다.

옆에 위치한 다른 텃밭에는 옥수수가 심어져있었다. 밭 앞에는 심은 작물과, 심은 날짜, 수확 예정일이 적혀 있고 밭 사이사이에 작물을 심은 방문객 이름이 적혀있다. 수확철이 되면 농원을 찾아 직접 수확할 수 있음은 물론, 농원에서 대신 수확한 작물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것도 한다.

텃밭을 지나치면 ‘상하키친’에 도착

한다. 상하키친 옆 햄공방에서 직접 만든 햄과 소시지, 그리고 농원에서 경작한 신선한 먹거리로 건강한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이다. 파스타와 피자, 샐러드 등을 맛볼 수 있다. 햄공방은 통유리로 되어있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수제 햄과 소시지는 파머스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햄공방 옆에는 ‘농원식당’과 유리온실이 위치해있다. 상하키친이 양식을 전문으로 한다면 이 곳에서는 한식을 맛볼 수 있다. 농원식당 내부의 유리온실에서는 식탁 위에 올라가는 각종 쌈·채소가 자라고 있다.

상하농원에는 장인들이 공들여 건강한 식료품을 만드는 공간인 공방이 있다. 상하농원 밭에서 자란 과일과 야채로 잼과 청을 만드는 과일공방, 매일유업의 저온 살균 우유와 동물복지 유정란을 사용해 건강한 빵을 만드는 빵공방, 명인과 함께 직접 메주를 쑼어 된장과 간장 등을 담그고 발효시키는 발효공방이 있다.

관계자는 “요리에 관심있는 분들이 지역 각지에서 찾아온다”며 “가을에 장을 담그면 숙성·발효 후 이듬해 봄에 찾으러 오시라고 연락을 드린다. 방문이 어려우면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발효공방 마당에 햇빛을 받으며 맛있게 익어가는 커다란 장독들을 볼 수 있다.

상하농원은 연중 다양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는 스트링치즈&피자 만들기 체험활동에 참



양혜영 명인이 발효공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위). 옥수수 텃밭 뒤로 파머스빌리지가 보인다. /신원선 기자

전북 고창군에 3만평 규모 조성
햄·빵 등 체험 가능한 공방 운영
딸기·블루베리 수확 프로그램도

양·당나귀 등 여유품 풀 뜯고
염소·토끼 등에 먹이주기 체험
내달 파머스빌리지 수영장 오픈

여했다.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수업이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다. 준비된 빵반죽에 치즈와 올리브, 옥수수, 햄 등을 토핑하고 나면 직접 구워서 체험객들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이 달에 참여할 수 있는 또다른 체험 활동으로는 딸기 수확이 있다. 고창군 딸기연구회와 협약을 맺은 상하베리굿팜에서 진행되며 양질의 선향딸기를 직접 수확해 맛볼 수 있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딸기 모종을 심어보고 직접 수확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부터는 블루베리 수확 체험프로그램이 운



영된다.

상하농원을 방문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물들과의 교감이다. 농원 안쪽으로 좀 더 걸어들어가면 젖소와 양, 당나귀 등이 사는 목장이 나온다. 울타리를 나와 여유품 풀을 뜯고 있는 양들도 발견할 수 있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소들도 원래는 축사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데, 최근 구제역이 발생해 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넓은 목장 한켠에는 염소와 돼지, 토끼, 닭 등 작은 가축들이 사는 축사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상하농원에는 참나무숲에서 노천탕과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파머스빌리지 스파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파머스빌리지 수영장도 있다.

오는 6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파머스빌리지 수영장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맞춰 상하농원은 ‘플캉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숙박 기간 내 수영장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객실, 조식, 스파는 물론 농원식당의 버크셔K 흑돼지 정식 또는 흑돼지 샤브샤브 중 하나를 사전 예약하면 10% 할인을 받아 즐길 수 있다. 또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농작물 수확 체험과,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이 포함된다.

올해 수영장은 기존과 다른 모자이크 타일 공법으로 리뉴얼됐다. 또한, 달팽이 모형의 독특한 유아풀에서 미끄럼틀과 적절한 온도의 풀을 운영해 가족들과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카스 0.0’ 논알코올 음료 가정 점유율 1위

오비맥주, 1분기 점유율 30.2%
제조사 가정 점유율 38.6% 기록

오비맥주 ‘카스 0.0’가 1분기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16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맥주시장 1위 브랜드 ‘카스’의 자매 브랜드인 ‘카스 0.0’가 올 1분기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에서 30.2%로 브랜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9% 포인트 성장한 수치이



다. ‘카스 0.0’는 지난해 8월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에서 첫 1위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 제조사 가정시장 점유율에서도 오비맥주는 38.6%를 기록하며 급성장 중인 국내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을 이끌고 있다.

제조사 점유율은 작년 동기 대비 13.4% 포인트 성장한 수치다. ‘카스 0.0’외에 ‘버드와이저 제로’, ‘호가든 제로’ 등 오비맥주의 기타 논알코올 브랜드들도 가정시장 점유율 톱10에 올랐다.

회사는 ‘카스 0.0’가 인공감미료 없이 ‘스마트 분리 공법’으로 알코올만 추출해 낸 품질력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발 빠른 마케팅 활동 덕분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GS리테일, 인공지능 레시피 하이볼 출시

‘아숙업 레몬스파클 하이볼’

세계 최초 인공지능(AI)가 제조한 레시피를 사용한 하이볼이 출시된다. GS리테일은 17일 ‘아숙업 레몬스파클 하이볼(사진)’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숙업 레몬스파클 하이볼은 업스테이지의 인공지능 챗봇인 ‘AskUp(애칭 아숙업)’과 대화해 만들었다.

챗GPT(chat GPT) 기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AskUp’은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주는 대화형 메신저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대화할 수 있다.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챗봇 AskUp에게 ‘맛있는 하이볼 레시피를 알려줘’, ‘하이볼 이름을 추천해 줘’, ‘당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격은 얼마로 출시하는 게 좋을까’ 등을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만들었다. /김서현 기자

더현대 서울에 맞춤 헬스케어 ‘킵더허들’

현대백화점서서 20억 투자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킵더허들’에 20억원을 투자하고 더현대 서울에 스토어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2030 고객을 중심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킵더허들과 손잡고 MZ세대 맞춤 헬스케어 스토어를 선보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 선보이게 될 헬스케어 매장은

단순 건기식 판매 매장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설문과 약사의 건강 상담을 통해 필요 영양성분을 추천해주고 복용 방법 등을 코칭해준다. 각 고객 개인별로 맞춤 조제된 건기식 일체를 1회분씩 소분 판매하며 정기배송 구독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헬스케어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기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그린푸드 ‘부부의날’ 기념 상품 할인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22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인 그리팅몰에서 ‘부부의날(5월 21일)’을 기념해 인기 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근사한 시간을 선물해줄 특별한 요리 ▲함께 즐기면 더 즐거운 야식 ▲오고가는 대화 속 디저트 한입 ▲시원하게 목 축여줄 음료 한 잔 등 부부의 날을 기념해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4가지 테마의 인기 상품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쿠팡, 21일까지 ‘원피스 빅 페스티벌’

인기 브랜드 최대 80% 할인

쿠팡이 21일까지 연중 최고 규모의 원피스 할인전 ‘원피스 BIG(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는 쿠팡에서 ‘원피스’ 키워드 검색량이 5~6월 가장 많다는 데서 기획했다. 아피나르, 씨(Si), 이사베이, 비키, 페이퍼먼츠 등 인기 원피스 브랜드들이 참여해 최대 80% 할인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데일로엔 여성 브

이넥 반팔 미니드레스 ▲엘쏘 여성용 오브리 햄번 롱 원피스 ▲아피나르 스퀘어넥 미니 원피스 등이 있다. 최저 5000원대 원피스를 포함해 총 8000여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하루 특가 코너는 매일 오전 7시에 오픈한다. 16일은 ‘빠빠 잔잔체크 퍼프소 매 프릴 롱 반팔 원피스’, 17일은 ‘데일로엔 여성 브이넥 반팔 미니드레스’를 특가에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